

지구대 플라스틱, Planet vs. Plastics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다음 주 4월 22일, 2024 지구의 날(Earthday)의 주제이다. 축구 경기처럼 플라스틱과 한 판 붙자는 뜻이다. 단 하나뿐인 행성, 인류와 못 생명의 보금자리인 지구,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공동의 집(Our Common Home)'라고 했다. 유엔에서는 '어머니 같은 지구(Mother Earth)'라고도 한다. 플라스틱 오염 퇴치에 나서자는 간절함과 비장함이 묻어 있다. 그만큼, 지금 지구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직시당하는 지경에 와있다.

지난 2022년부터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해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이겨내고자 2024년 말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정'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세부 사항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에 위임했다.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다음 주 22일, 지구의 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INC 회의가 일주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마지막 5차 INC 회의가 개최된다. 여하튼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정이 체결되고 오염 종식을 위한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이에

올해 지구의 날을 기리는 세계 각국의 민간조직들이 플라스틱 퇴치를 주제로 택한 것이다. 세계 NGO들은 2040년 60% 감축을 요구하며 각국 정부와 유엔이 제대로 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최근 유엔 등의 자료(2022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20년 전보다 2배 증가했고, 오는 2050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인류가 사용하는 물질 중 철강이나 시멘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겨우 9%, 35%가 자연환경에 버려지고,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양도 1,100만 톤 이상이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지면 자연에 남는다. 그것이 곧 미세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범인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물, 숨 쉬는 공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지구상 모든 곳, 하늘 땅 바다에서 그것이 검출되고 있다.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했을 경우, 호르몬 계통의 질환과 각종 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유엔과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류가 플라스틱 위기를 벗어나려면, 2040년까지 생산량을 반 이상 축소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Single Use Plastics) 같은 불필요한 것들의 금지, 기술혁신을 통해 재활용과 재이용의 촉진, 그리고 대체용품의 개발 보급이 절실하다. 더불어 모든 정부가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체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연 특히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 현재 이런 내용

이 협상위원회(INC)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석유 가스에서 개발된 물질이다. 거대 산유국들과 석유 화학산업계 등 플라스틱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이들은 생산량의 축소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구속력 있는 협정 등을 반대하고 있다. 협정체결에 암초들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가장 쉬운 대응책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컵이나 빨대, 비닐 백, 식기류, 각종 식품 용기, 식당 티슈 등 딱 한 번 이용하고 버리는 이들을 추방하자는 주장이다. 사실 수년 전부터 다수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분적으로 금지를 법과 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들 일회용 플라스틱에 너무도 관대하다. 정부나 국회, 혹은 지방정부에서 정쟁이 된 적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플라스틱에 중독되었는지 모른다.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지구의 수호자로서 플라스틱 악당과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각성해야 된다. 얼마 후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도 나서야 한다. 정책과 법률을 가져야 할 것이다. 풀뿌리 지방정부들도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와 같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번 지구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 플라스틱 오염 퇴치의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행동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社說

국민과의 약속, 공약이행에 최선 다해야

15일 본사 주최 당선자 교례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이 15일 전남일보가 마련한 당선자 교례회에 참석해 좋은 정치를 다짐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선자 모두가 본인을 선택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8석을 모두 석권했다. 하지만 이날 당선자들은 '겸손하겠다거나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닌 만큼 더 낮은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이제는 지역의 민생과 삶,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 '광주답게 정당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슴이 따뜻한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도 대다수 당선자의 바람이었다.

지역별 특화된 약속도 눈에 띄었다. 광주 동남을 정진욱 당선자는 '양

질의 일자리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했고,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당선자는 '군 공항과 의대 등 지역의 첨예한 현안이 제대로 된 속의를 통해 결론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농업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나주·화순 신정훈 당선자와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겠다'는 광주 북을 전진숙 당선자, '민생을 챙겨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권향엽 당선자의 약속도 지역과 지역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담겨있다.

당선자들의 발언은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금까지 선거와 이날 교례회에서 한 약속을 지켜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도 복원시켜야 한다. 정진욱 당선자는 이날 교례회 인사말에서 유권자가 했다는 '잘해라이~'라는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를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더 분발하라는 지역민의 매서운 채찍이다. 어쩌면 유권자의 마음은 단순하다. 광주·전남지역 18명의 당선자가 잘하면 지역민은 언제든지 든든한 응원군을 명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깜짝 효과' 자화자찬 안돼

광주 미세먼지 5년만에 감소

광주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18.7 $\mu\text{g}/\text{m}^3$ 으로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농도는 33 $\mu\text{g}/\text{m}^3$ 이었으며 2019년 1차 21.6 $\mu\text{g}/\text{m}^3$, 2020년 2차 23.9 $\mu\text{g}/\text{m}^3$, 2021년 3차 23.1 $\mu\text{g}/\text{m}^3$, 2022년 4차 23.3 $\mu\text{g}/\text{m}^3$ 이다. 5차 평균 수치는 2018년에 비해 43.3% 개선됐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5 $\mu\text{g}/\text{m}^3$ 이하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58일로 지난해 36일보다 22일이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36 $\mu\text{g}/\text{m}^3$ 이상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일로 지난해 14일보다 2일이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계

절관리제 시행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개 분야 16개 저감 대책을 시행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노후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과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다. 대기 특성상 정확한 측정이 한계가 있다. 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깎아 내리지는 건 아니다. 다만 5년치 수치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선부른 판단은 아직 이르다. 날씨의 영향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일정한 성과와 달리 미세먼지 농도는 외부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아직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자화자찬은 금물이다. 공기는 선택권이 없다. 환경의 역습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는 시시각각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항구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4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임신 중지'(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잉태된 모든 생명을 지지하고 임신 12주 차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유럽연합(EU)은 낙태를 기본권 헌장에 포함하자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폴란드 연립정부는 낙태 금지를 해제하는 4개 안에 대한 추가 세부 작업을 승인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바르샤바=AP/뉴시스

서석대



'팔랑개비' 혹은 '도르라기'라는 또다른 이름을 지닌 바람개비.

관개시설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비가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선현들은 바람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 지붕 위에 바람개비를 매달아 풍년을 기원했고, 배에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알기 위해 바람개비를 달았다. 아이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놀았다.

'세조실록(世祖實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새해 풍작을 기원해 벼, 기장, 조, 보리, 콩 등 오곡의 이삭을 빗짚 주저리와 함께 긴 장대에 매달아 마구간 옆이나 대문간 앞에 세웠고, 이때 이삭 밀의 장대에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달았는데 이를 보름 벼기리라 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아이들이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연 띄우기를 그만두고 오색 종이로 풀집을 하여 대나무 가지의 양 끝에 붙이고 자루 끝에 구멍을 뚫고 연결하여 빙빙 돌도록 만든다. 그것을 '회회아(回回兒)' 또는

바람개비라고도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주술 혹은 놀이의 일종이던 바람개비에 이젠 추모의 의미가 더해졌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도 세월호 추모관이나 학교, 기관 화단에 심어진 노란 바람개비들이 꽃이 되어 서글피 나부끼고 있다. 희생당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듯, 바람개비 위로 노란 나비들이 내려앉는다. 빙그르르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보며 누군가는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품는다.

T.S 엘리엇의 표현대로 '가장 잔인한 달' 4월이다. 떠올리는 것조차 아프지만 그럼에도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이들은 물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노란 바람개비를 보며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는 세상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미래의 아이들 손에 재밌는 장난감으로 쥐어지는, 바람개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양가람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